

건축분야도 교육 및 연구 국책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때

Architecture Field Also Should Have More Interesting in Government Financed Projects for Education and Research



文 昌 浩 / 정희원,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Moon, Chang-Ho /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mchangho@kunsan.ac.kr

들어가는 말

요즘 건축분야에서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등 좋은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품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실제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산업자원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연구 관련 국책사업의 참여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2004년 6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누리(NURI)사업의 단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05년 2월부터 2년간은 군산대학교 공대학장으로 학내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공식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여 대학과 산업계의 다양한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다른 학문/산업분야를 보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부러웠다. 그간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음 글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국책사업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국책사업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누리사업과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인 상황

건축계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연구 국책사업에서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축분야가 교육/연구를 위한 국책사업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시도하기 보다는 학문이나 산업의 성격 탓으로 돌리며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분야 교수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각종 용역이나 개인적인 연구과제가 비교적 흔하고 소위 “영양기”도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교육/연구 국책사업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다. 그간도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건축분야의 교육/연구에 재원이 투자되지 못하여 다른 학문/산업 분야에 더욱 뒤떨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기계자동차, IT, 신소재, 화공 분야 등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이고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학문/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 산업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활동이 활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간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온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공대학장 자격으로 전국적인 협의회나 공학교육 관련 행사에 참석해보면 건축이나 토목분야 출신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도 역시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화공 등의 전공분야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공과대학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나 대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의사항 등도 건축분야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쉽다.

누리사업

누리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5년간 지속될 교육사업이다. 전국 사업단장들의 모임인 (사)누리협회에 나가보면 역시 기계자동차, IT, 화공, 신소재, BT 등의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분야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간도

다양한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의 사업단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은 소형사업으로 되어있다.

군산대학교 건축과의 경우도 사업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수들 간의 참여여부 자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수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학생들에게만 각종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과 교수들끼리는 “우리가 제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공모에 신청하게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리학과가 주관하는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매년 우리학과에 배정되는 사업비는 대략 4-5억원정도인데, 각종 전문가 초청특강 및 세미나, 장학금, 해외어학연수, 현장 및 고건축 답사, 실험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 교육시설 개보수 등에 투자된다. 사업 이전 학과에 배정되던 연간 기천만원 예산에 비교하면 누리사업비는 엄청난 자원이다. 3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 현재 참여 교수들의 희생과 봉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기본소양 및 전공분야 수준이 향상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등 사업성과를 지켜보면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2009년 사업이 종료될 시점이 되면, 우리학과는 누리사업과 공학교육인증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육을 위한 인프라(hardware)와 시스템(software)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단계/연차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미래 원천기술개발과 차세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지방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물류IT(부산대), 헬스케어(전북대), BIT(충북대), Bio Housing(전남대) 등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단에 따라서 3차년도 또는 4차년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연간 30여억원(국비 25억원, 대응자금 5억여원) 규모로 10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사업단의 분야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 BT, 헬스케어 등 소위 최첨단 분야가 주류이다.

건축분야 사업단은 “Bio Housing연구사업단”으로 주관대학은 전남대학교 건축과이며 인근의 2개 대학이 협력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단은 친환경 재료, 공구법 및 평가기술 개발(1단계), 건설기술의 산업브랜드화 및 기술상품화(2단계), 친환경 산업화 기술의 실용화, 표준화 및 기술 보급도구 개발(3단계) 등

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일 연차평가에서 소위 최첨단 분야인 나머지 3개 사업단과의 경쟁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과를 냈으며, 사업의 내용도 우수했지만 건축분야의 특성을 살려 멋진 보고서를 제출했고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동참했던 다른 전문분야 평가위원들도 색다른 관점의 연구방식과 결과를 보면서 참신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 사업단은 건축분야의 연구관련 국책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판단된다.

맺는 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분야가 다른 학문/산업분야와 보조를 맞추며 학문 및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가 관건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건축분야의 현재와 같이 한정되고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는 뾰족한 방안이 있을 수 없다. 대학교수들의 낭만적인 열정만으로는 발전의 지속성에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교육 국책사업이 재원확보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건축과는 대부분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축분야 산업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의 국책사업에 건축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분야의 정부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 연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및 교육부분의 사업비 배정은 찾아볼 수 없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분야 교육/연구 관련 국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회차원에서 필요요청을 제시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